

# 현대 한국미술과 민족주의란 두 개의 얼굴

최 태 만

국민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민족·국가·민족주의
- III.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두 얼굴
- IV.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 V. 결론을 대신하여,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해체하는가?

## I. 들어가는 말

“하나의 유령이 지금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즉 야스쿠니 신사와 동북공정을 앞세운 민족주의가 앞장을 선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의 열강들이 국가주의란 유령으로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앞의 짧은 글은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작성한 『공산당선언』을 풍자적으로 모방한 것이다.<sup>1)</sup>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혼용하고 있으나 지금의 세계정세에서 민족주의든 국가주의든 다 같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자 현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한국사회에서 민족, 민족주의는 정의(正義),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자 절대선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욕망의 체계다.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

---

1) 이 논문의 초고를 완성한 후 관련 자료를 보완하다 재일 한국인 학자인 강상중이 『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ぬぎして』(東京: 平凡社, 2001, 19-54쪽)에서 이미 비슷한 표현을 하였음을 다른 논문(한상일,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집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25쪽)에서 발견하였으나, 그의 논지와 상관없이 『공산당선언』을 가공한 것이므로 본문을 고치지 않았음을 여기에 밝혀 둔다.

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감당해야만 했던 구한말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를 거치는 동안 민족주의는 더욱 공고한 생존의 논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폐쇄적, 배타적, 국수적 민족주의가 선택한 쇄국정책이 결과적으로 민족의 절망과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대동아공영으로 위장한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에 점령당한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주의는 민족개선론과 같은 개량민족주의로, 다른 한 편에서는 비타협적인 저항민족주의로 발전했다. 이 글의 목적이 근대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담론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추이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서구에서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등장한 언어인 ‘Nation’을 일본에서 ‘민족’이란 말로 번역한 이래, 본래 ‘백성의 무리’란 넓은 뜻으로 이해해야 마땅할 ‘민족’이란 개념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종족개념으로 자리하면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Ⅱ. 민족 · 국가 · 민족주의

오해와 자의적 남용이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개념의 역사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민, 나라, 국가, 민족, 공동체 등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이션(Nation)’은 출생, 출신가문, 집안, 족속, 부류, 파벌, 당파, 민족, 종족, 국민, 나라, 국가 등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출생의 여신을 지시하던 라틴어 ‘나티오(nātīō)’<sup>2)</sup>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이 말은 또한 동사 ‘태어나다(to be born)’란 뜻의 ‘나스치(nāscī)’의 과거분사형인 ‘나투스(nātus)’와 연관을 지닌 것으로, ‘나티온(nātiōn)’은 이러한 용어에서 비롯된 조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티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영어의 ‘태어난 땅의, 출생(지)의, 타고난, 토착의’ 등의 뜻을 지닌 네이티브(native)와 연결되는 한편, 혈족을 의미하는 킨(kin)과도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라틴에서 ‘나티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기원전 44년 키케로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에 맞서 사용한 다음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종족들은 노예 상태를 견딜 수 있으나,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Omnes nationes servitatem

2)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 연구소 편찬,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545쪽.

ferre possunt : nostra civitas non potest).”란 글에서 볼 수 있듯, 키케로는 로마 공동체(civitas)와 구별하여 외족(外族)이나 하위민족을 일컫는 용어로 나시오네(nationes)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sup>3)</sup> 이처럼 오늘날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족을 뜻하는 Ethnos, Ethnie, People, Nationality, Nation 등은 라틴어의 포풀루스(Populus), 시비타스(Civitas), 겐스(Gens), 나티오를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어 데모스(Demos), 에트노이(Ethnoi) 등의 고대어에서 비롯한 것으로, 데모스, 포풀루스, 겐스, 나티오 등이 고대의 부족국가나 폴리스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용법에 따라 외부의 공동체나 적대적 부족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민족의 어원이 되는 고대어들이 지닌 이러한 다중적 의미망은 이미 그 기원에서부터 민족 개념이 Ethnoi, Gens, Nation처럼 집단적 원초성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Demos와 Populus는 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동질적 ‘우리’이거나 집단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그들’이기도 한 이중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원초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을 말해준다.<sup>4)</sup> 이런 점에 주목하여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민족’이란 말이 ‘출생지의(native)’란 말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으나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란 말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든(artificial)’ 것이라고 했다.<sup>5)</sup>

용어상으로 ‘Nation’은 국가와 동의어로 사용되는가 하면 국민 또는 민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국가를 정치적 표현물로 갖는 시민을 뜻할 때는 ‘국민’이 되고, 공통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영토적인 정치권력을 요구하는 집단을 뜻할 때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sup>6)</sup> 그렇다면 서양에서 비롯한 ‘Nation’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한자어 ‘민족’으로 번역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파생한 언어를 ‘민족’이나 ‘국민’이란 한자어로 번역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 학자였으며, 메이지 헌법이 천황 제도를 기초로 한 까

3) M. Tullius Cicero, “All nations can endure slavery. Our state can not.” *The Orations of Marcus Tullius Cicero*, literally translated by C. D. Yonge, London : George Bell & Sons, 1903, X, 20.

4)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27-29쪽.

5) Raymond Williams, *The Year 2000*, New York: Pantheon, 1983; Timothy Brennan, *The national longing for form, Nation and Narrative*, ed. by Homi K. Bhabha, New York: Routledge, 1990, p. 45에서 재인용.

6) 최갑수,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제31호,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2003, 2쪽.

답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메이지 초기인 1871년에 만들어진 ‘호적법’에서 ‘국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이나 민족이란 번역어와 관련하여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민족이란 말이 문명에 근접한 용어인 ‘Nation’이 아니라 문화와 연관이 깊은 독일어 ‘Volk’를 기원으로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7)</sup>

일본에서 번역한 민족이란 용어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895년(光緒 21년)에 발행된 『강학보(強學報)』의 「이슬람 제국은 왜 힘이 약해졌는가」란 글로 알려진다.<sup>8)</sup> 그 후 서구열강의 간섭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중국에서도 민족이란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를 전파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은 쑨원(孫文)이었다. 한국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중국보다 다소 늦은 대한제국 시기, 즉 1907년쯤부터 사용되었다.<sup>9)</sup> 한국에서 민족이란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포(同胞)’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포가 혈연적 유대를 강조한 것이라면 민족은 역사적 운명공동체란 함의를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민족·국가·민족주의는 모두 근대의 산물이다. 즉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을 탄생시킨 것이다. 내셔널리즘의 기원을 말할 때, 그것이 국민주의냐 아니면 민족주의냐에 따라 시기설정과 발원지가 달라진다. 국민주의를 빚어낸 것이 프랑스혁명이라면, 민족주의는 이 혁명의 충격 속에서 독일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sup>10)</sup> 영국이나 프랑스가 국가에서 국민주의를 거쳐 국민의 과정을 겪었다면, 근대적인 국민 국가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나라에서는 민족주의-민족-국가-국민이란 전도된 방식으로 국가민족주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지적했다시피 첫째, 민족의 개념은 역사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근대성을 지닌 반면 민족주의자들의 주관적인 눈으로 보면 고대성(antiquity)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근대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고, 가질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국적(nationality)의 형식적 보편성이 있는 반면, 정의상

7)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106쪽 및 114쪽.

8) 니시카와 나가오, 앞의 책, 117-118쪽. 그 후 1877년에 량치차오(梁啟超)가 민족, 민족주의란 용어를 다 같이 썼다고 한다. 정갑영,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오름, 2005, 제6장 참고.

9) 박찬승,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역사비평』 통권 75호, 2006 여름호, 286쪽.

10) 최갑수, 앞의 책, 3쪽.

‘그리스’ 국적이 독특한 것(sui generis)처럼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바뀔 수 없는 특수성이 있고 셋째,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위력이 있는 반면 철학적으로는 그 내용이 빈곤하고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는 패러독스 앞에 노출되어 있다.<sup>11)</sup>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해 정의한다면, 일반적으로 문화의 공통성과 동일성을 기초로 운명의 공동성을 자각한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 독립운동을 연구해 온 신용하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sup>12)</sup>란 규정과 겔너(Ernest Gellner) 역시 민족주의를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 또는 문화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라고 정의<sup>13)</sup>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족에 대해 인간이 “공동의 언어·지역·혈연·문화·정치·경제생활·역사에 의하여 공고하게 결합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결합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4)</sup> 즉 그는 객관적인 조건과 민족의식이란 주관적 조건이 역사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를 민족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연적 동질성과 유대를 전제로 한 것임을 간과할 수 있다.

서구처럼 근대국가(nation-state)를 수립하지 못한 채 서구열강, 러시아, 중국, 일본의 간섭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던 한반도에서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을 지닌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을 수식하거나 규정하는 단어인 배달, 겨레, 동포, 백의민족 등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민족의식은 강한 혈통적, 가족적 연대감을 지닌 것이었다. 삼국 통일 이래 같은 땅에서, 비록 후삼국시대란 과도기가 있긴 했으나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 아래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부르주아혁명을 거치며 근대 시민사회, 국민, 국가를 형성한 서구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단일민족’이란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기는 했으나, 삼국통일에서 민족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허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상 아래 구성된 한 가족’이란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관

11)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24쪽.

12) 앞의 책, 25쪽.

13)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1.

14)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2006, 35쪽.

념이 내면화되면서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 동안 혈통적 순수성을 지켜온 민족이란 정서적 연대감이 이민족에 대한 저항과 배타는 물론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은폐하거나 혹은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주의가 봉건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남한의 권위주의 사회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수령’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앤더슨이 말했듯 ‘상상 공동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민족과 국가는 동일해야 한다는 ‘한 민족 한 국가관’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 아래 개인, 국민, 민족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가주의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강화된다.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앞세운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이란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행복을 지켜주는 정치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불의와 비효율의 근원이자 가장 두려운 폭력집단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국가는 분쟁의 원인이자 ‘전쟁 기계’였고, 전쟁을 생산·확대하는 장치였다. 국가간 분쟁에 동원된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임과 동시에 전쟁의 수행자이길 강요당했으며, 국가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했다. 국가와 국가를 통제하는 지배계급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였으며, 애국주의는 승화된 국가숭배라고 할 수 있다.

단일민족이므로 하나의 국가에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 집착은 국가민족주의를 낳았지만, 분단은 ‘민족 없는 국가’ 곧 두 개로 나뉜 민족이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을 심화시켰으며, 애국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두 체제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윤리로 더욱 강고해졌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을 계몽하며, 민족의 한 부분을 ‘반민족으로 척결’하기 위한 억압, 지배, 배제의 논리로 동원되는가 하면 체제에 저항하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이념적 건인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민족주의가 지닌 두 얼굴이며 여기에 국가나 국가주의가 들러붙을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파 민족주의, 좌파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수많은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다양하게 해석, 전유,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방증한다.

### Ⅲ.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두 얼굴

#### 1) 국가민족주의 시대의 미술

과잉, 남용, 굴절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에게 여전히 존재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작동한 민족주의 중에서 먼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민족주의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으나, 분단으로 인해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공화국을 미완의 민족국가이자 결손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완과 결손은 오히려 민족적 단결을 부추기는 도구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한다. 어떤 민족이든지 국가 건설에 성공하게 되면 민족주의는 거의 예외 없이 ‘관제적(official)’ 성격을 띠게 된다. 국민통합과 국민화를 위한 문화적 하부구조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국민 모두에게 내면화하기 위한 공세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sup>15)</sup>

친미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적 자본주의,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은 통치체제의 구축과 강화를 위해 변질된 민족주의라 할 수 있는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동원했다. 그의 일민주의는 ‘사상이나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게 만드는 데 장애가 있으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sup>16)</sup>로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배제와 비타협의 논리인 일민주의는 북한 주민은 동포이고, 북한 정권은 ‘반민족적인 적’이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것의 완결은 북진통일이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와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의 북진통일론은 남한의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냉전 체제 아래서 남한을 반공의 보루로 삼은 이승만은 미국의 대공산주의 전초 기지로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통치형태를 보여주었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과 김구의 암살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식민잔재와 친일파의 청산은커녕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제1공화국은 미국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취약성을 권위적이고 봉건사회의 가부장적 위계를 통해 통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념물을 건립하거나 동상, 영정 등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념물들이 모두 민중 계몽이란 목적을 띠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정

15) 최갑수, 앞의 책, 17쪽.

16)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18쪽.

부(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었으며,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한한 절대적 존재를 보게 하는 우상에 민족적 이미지를 입히는 것이었다.<sup>17)</sup> 그러나 제1공화국이 내세운 민족주의의 취약성은 이순신 동상을 친일미술가인 김경승, 윤효중에 맡기고, 그의 영정은 김은호가 그렸다는 점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sup>18)</sup>

3·15부정선거는 제1공화국의 종말과 아울러 이승만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권위적 통치에 의해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와 불만이 극한에 다다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4·19를 통해 달아오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로 향한 열망은 5·16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에 의해 다시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박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뼈에 사무치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자신의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또한 창안했다. 그의 민족주의는 이승만과 다를 바 없이 동도서기(東道西器)에 기초한 것이었고, 반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민족주의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집권과 동시에 경제개발에 주력한 박정희는 1962년 1월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민조직과 국민훈련을 강화하여 승공민주이념을 확립’<sup>19)</sup>할 것을 천명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 그가 표방하는 민족주의는 다분히 계몽적, 훈육적, 교도적(敎導的)이었고, 위에서 하달한 이념적 전제이자 실천방안이었다. 1970년 연두기자회견은 박정희가 생각하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sup>20)</sup> 대아를 위해 소아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명령에 가까운 윤리는 그가 일본의 군사학교와 군대

17)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112-183쪽 참고.

18) 일제시대 친일행각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8일에 조직된 ‘조선미술 건설 본부’에서 제외되었던 이상범, 김은호, 김경승, 윤효중 등이 이순신이나 안중근의 동상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김경승은 1955년 부산 용두산공원과 1953년 통영 남망산에, 1956년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의 기념동상을 제작하기도 했던 윤효중은 진해에 각각 세워진 이순신 상을 제작하였다. 김경승은 한술 더 떠 민영환, 안중근의 기념동상도 제작하였다. 제1공화국, 그것도 전쟁 중에 진해에 건립한 이순신 동상은 1950년 11월 해군 통제부 사령관 김성삼의 발의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정, 앞의 논문, 123-124쪽 참고.

19) “혁명과업 수행대열에 민족의 총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민조직과 국민훈련을 강화하여 승공민주이념을 확립할 것이고,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양양하여 국민 지식 수준의 향상과 민주사상의 고취를 위해 전국적인 문맹해소와 계몽운동을 추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정신을 위시한 도의 진작에 치중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I : 최고회의의 편』, 대한공문사, 1973, 165쪽





도 1. 1968년 세종로에 설립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의 소조 원형을 완성한 후 작업실에서 기념촬영을 한 조각가 김세중.

에서 애국선열 기념 동상, 민족기록화 등의 역시 동원된 사업을 통해 ‘민족’을 대상화하고 신비화했다.

박정희가 집권 내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강제하면서 내세운 위인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이었다. 박정희가 특히 이순신을 신격화하여 언고자 한 효과는 첫째, 이순신이 가진 반일 이미지로 자신의 친일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것 둘째, 이순신의 구국영웅적 이미지로 군인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 셋째, 이순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야당 세력을 ‘분열과 당쟁을 일삼는 악’으로 내몰았다는 것<sup>21)</sup> 등이다.(도 1)

세종대왕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애착도 ‘세종대왕 및 한글 강조를

20) ‘나’라는 우리 개인을 우리는 이것을 소아(小我)라고 합니다. ‘나’를 확대하고 연장한 것이 국가인데 그 국가를 우리는 보통 ‘대아(大我)’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말할 때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내 나라, 너의 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나’와 ‘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것은 ‘나’와 ‘너’와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며, 나를 확대한 것이 즉 우리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나’를 확대한 ‘대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민족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나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미덕이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편, 「대통령 연두기자회견(1970. 1. 9)」, 앞의 책, 685쪽.

통해 자신이 민족주체성을 세운 정권임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수인 한글의 전용화를 결정한 박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민족문화의 계승 자라는 논리를 전파하려는 의도와 함께 군사정권의 딱딱한 이미지를 세종 대왕의 문화 이미지로 순치시키려는 의도'<sup>22)</sup>가 작용한 결과였다.(도 2) 결국 박정희는 이순신과 같은 자신을 통해 퇴영과 침체에서 벗어나 세종시대와 같은 황금시대를 재현하겠다는 메시지를 이미지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겠다.<sup>23)</sup> 이런 점에 주목할 때 홉스봄(E. J. Hobsbawm)이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은 전통을 발명하고 민족에 대한 신화를 창조한다고 말했던 것은 어느 면에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박정희의 과잉 민족주의는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날조하고 재구축한' 지배이데올로기였으며, 만주군 군관 다카기 마사오가 항일 빨치산 김일성의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세운 반공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장치였다.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부르짖은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의 근간은 '민족혼의 고취를 위하여 민족문화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미술가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하나는 군사정권의 파쇼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이고, 또 하나는 매관적 경제정책 하에서 환상을 심어 가는 데 유효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국제주의가 그것이다.<sup>24)</sup> 통제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한국의 현대미술은 특히 신진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국전의 보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전위적 예술 활동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민족기록화 제작'이란 퇴행적 발상이 제안, 실행되자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힌 미술가들을 제외하면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된 민족기록화는 따라서 박정희 정권이 걸어 놓은 '민족주의를 내세운 국가주의'를 선전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족기록화전》은 1967년 7월에 재단법인 5·16민족상 주최로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렸는데, 이 사업을 착안한 사람은 당시 5·16민족상 이사장인 김종필이었다. 그가 1966년 조각가 김세중과 화가 정창섭을 만나 이



도 2. 김경승, 〈세종대왕〉, 1968, 청동, 덕수궁.

21)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15집 특별호, 2005, 223쪽.

22) 앞의 책, 225쪽.

23) 박계리, 「충무공 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4, 162쪽.

24)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증보판), 돌베개, 1994, 146-147쪽.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sup>25)</sup> 그해 12월 민족기록화 제작 발족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록화 제작 업무를 관장케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기록화 제작사무소까지 설치하였을 정도였다. 이 기록화사업의 추진에 대해 비판과 불평도 많았으나, 이 글에서는 그것보다 민족기록화란 선전회화 속에 작동하던 지배이데올로기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의 발상이 1966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통합야당인 신민당의 윤보선과 경합하여 110여만 표 차로 당선하였고 이어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기록화 사업의 계속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다.<sup>26)</sup>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6년에 발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을 위한 권력기반을 조성하였으나, 박정희는 7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동베를린 거점 북한대남공작단 사건을 발표하고 104명을 구속하여 자신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보여주었다. 1967년에 전시된 민족기록화의 주요 주제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독립운동과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박정희의 쿠데타를 미화한 것이었다.(도표 1 참고) 예외적으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주제로 한 〈천개도〉만 뚜렷한 시각적 기준이나 고증이 불분명한 채 제작되었으니 ‘반만년 역사 위에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혈통적 순결성을 불안하고 자의적인 이미지에 호소하여 설득하려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전시의 도록에 붙인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격려사는 이듬해 공표된 ‘국민교육헌장’의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 삶의 길’이므로 승공통일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구호와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기록화를 통하여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다시는 치욕의 역사와 비극적인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민족역량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승공(勝共) 통일을 다짐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박정희 대통령)<sup>27)</sup>

25)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68쪽.

26)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흥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수없이 많았던 외세의 침략을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격퇴한 민족이며, 인내와 끈기로 고난을 이겨낸 생명력과 창조력을 지닌 민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1967.

27) 박혜성, 「1960 ~ 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미술이론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62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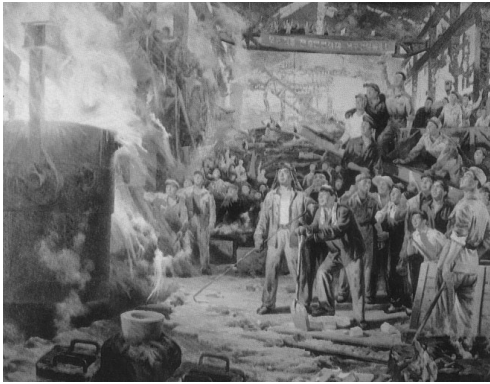
1967년 전시된 민족기록화 중 절반 이상이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국군이 북한의 인민군에게 승리를 거두는 내용을 그린 것이며, 공산주의와 ‘괴뢰군’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괴뢰도당을 섬멸하는 것에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실행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냉전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위업이나 민족 수난의 위기에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구국전승의 기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민족 최대의 위기였던 일제에 의한 식민점령을 다룬 작품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박정희에게 ‘반민족’은 일제가 아닌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한이었음을 증명한다.<sup>28)</sup>

애국,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희생 등은 로마공화정을 이상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동경했던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Jacques Louis David)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와 같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토스이며, 이것이 나폴레옹 시대에 개인숭배, 영웅예찬으로 발전하였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술한 전투장면을 마치 무대처럼 펼쳐놓은 후 등장하는 김인승의 <박정희 장군의 혁명군 지휘>나 박상옥의 <혁명군의 한강 도하>를 그로(Jean Antoine Gros)가 그린 나폴레옹을 예찬하는 영웅적 주제의 작품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기록화 중에서 상당수가 전쟁 기록사진을 그대로 재현한 까닭에 창의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전쟁기록화와 유사하다는 사실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기록화 정책사업은 군사정권이 혁명공약으로 내건 민족 문화노선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화노선이란 자신의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것에 불과했거니와 실상은 민중의 생활과 관계없는 지배세력의 문화적 장식욕구에 불과했다.”<sup>29)</sup>는 비판적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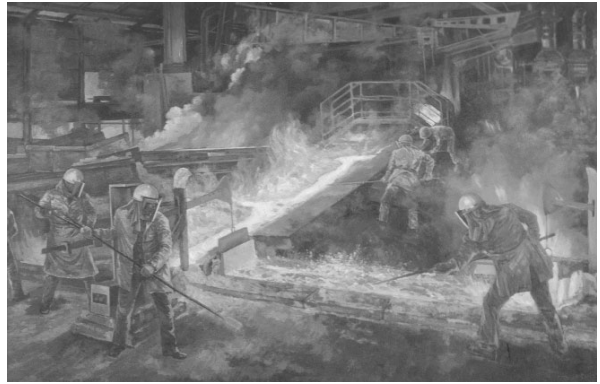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이나 수시로 발표한 많은 담화문의 계몽적 이면서 구호적인 문구 못지않게 이미지를 통한 선전, 개인숭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요 행사 때마다 광화문과 같은 공공 공간의 아치에 그의 거대한 초상을 게시한 것이라든지, 심지어 유신 이후 교과서 앞에 자신의 초상사진을 수록한 것은 적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닮아가는 자기기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란 틈바구니에서 남한과 북한은 다 같이 통치자가 걸어 놓은 주술과도 같은 선전이미지에 포위당한

28) 박혜성, 앞의 논문, 43쪽.

29) 최열, 앞의 책, 147쪽.



도 3. 박문협, 〈전후 40일 만에 첫 솟물을 뽑은 강철 전사들〉, 1971, 캔버스에 유채.



도 4. 오승우, 〈포항종합제철〉, 1973, 캔버스에 유채.  
(좌측부터)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체제이념으로 확립하는 것을 지켜보며 박정희 역시 경제개발과 함께 이념투쟁의 중요성을 느꼈음에 분명하다. 제1공화국에서 물려받은 반공뿐만 아니라 남한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의 필요성에 따라 박정희는 1968년 1월 15일에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제2경제’란 새로운 개념을 창안, 제시한 것이다. 그는 제2경제에 대해 ‘증산, 수출, 건설 등의 소위 통념적인 경제를 제1경제’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 등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조 등’이라고 규정했다.<sup>30)</sup> 결과적으로 그의 제2경제 안은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1차 민족기록화 사업이 주로 전쟁기록화를 통한 애국심의 고취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시월유신을 전후하여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등을 주제로 한 기록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도표 3~5 참고)

그런데 산업현장의 풍경을 낭만적이고 낙관적으로 표현한 기록화는 비단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그려졌고,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란 체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컨대 1971년 박문협이 제작한 작품(도 3)과 1968년도에 설립된 포항종합제철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장면을 1973년 오승우가 그린 〈포항종합제철〉(도 4)을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문협은 20대 초반부터 강선제강소에서 주물공으로 일하며 미술창작을 한 노동자 미술가로, 현지 파견미술가로 나온 송찬형에게 지도를 받아 국가적 주요 창작사업에도 참가하였는데 〈전후 40일 만에 첫 솟물을 뽑은 강철 전사들〉에 대해 리재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일떠선 강선 로동계급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하던 미제국주의자들

30)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 제6대 편』, 대한공론사, 1973, 133-134쪽.

의 궤변을 짓밟아버리면서 40일 만에 자랑찬 첫 췌물을 뽑아낸 역사적인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화'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1)</sup> 북한의 그림이 노동계급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남한의 그림은 경제성장을 강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드러진 유사성은 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비슷한 현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위에서 하달하는 민족주의 즉 계몽적이고 동원된 것이며 혼욕적인 민족주의는 권위적, 발전지향적, 간접적인 국가민족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된 민족주의가 주입한 바이러스는 '단일민족'이란 미술과 만나며 다른 민족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이란 '유령'을 낳았다. 일본을 경유한 것이든, 직수입한 것이든 서구의 미술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정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한국적, 동양적이란 형용사로 얼버무리려는 태도에서 체질적으로 잡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혈통 순정주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의 자존심이 서구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일상의 삶과 대중문화는 근대화, 현대화의 구호 아래 철저히 서구화하였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식민화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2) 주체사상과 동원이데올로기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북한에서 더욱 완강하고 전면적으로 개발, 생산, 유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헌자료에 따라 북한의 현대사는 항일혁명투쟁시기(1926. 10~1945. 8), 조선전 건설기(1945. 8~1950. 6), 조국해방전쟁 시기(1950. 6~1953. 7),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 시기(1953. 7~1961. 9),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시기(1961. 10~1970),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시기(1971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이 현대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김일성의 '영웅적인 영도력'이 있다. 냉전체제에서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에 맞선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를 축으로 하는 통치이데올로기를 구상하였고, 그것은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보다 구체화되며 특히 흐루시초프의 등장, 중소분쟁을 겪으며 민족주의를 내면화한 주체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근대적 국민국가가

31)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636-637쪽.

32) 채상우, 「북한의 문예이론에 대하여 -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민족국가 기획으로서의 문학」,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 407쪽.

형성되기도 전에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에서 이념의 교사는 소련이나 코민테른이었고, 이들은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에서 민족해방이 선결되어야 함을 인식했다.<sup>33)</sup> 일찍이 여운형을 맞이한 레닌도 “조선은 전에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못하는 민도가 낮으므로 곧 공산주의를 실행하려 들어선 잘못이다. 지금은 민족주의부터 실행함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충고하였고, 조선 혁명가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sup>34)</sup> 이렇듯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일제의 사상탄압, 농민·노동자의 정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방안을 결여한 채 혁명의 기지인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내부의 노선투쟁을 벌이는 등 초기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수립된 북한 정권은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분단을 현실화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선 개혁, 후 통일’의 노선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토지개혁,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통해 남한보다 월등한 역량을 갖춘 북한은 국공합작 당시 중국으로 갔던 정예부대가 북한으로 돌아오고, 소련에서 군사지원을 받으면서 무력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은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상륙작전으로 군사적 우세에서 열세를 맞아 패퇴할 수밖에 없었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전으로 비화한 한국전쟁은 휴전 체제 아래 분단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에 의해 야기된 초토화의 악몽을 벗어나기 위해 전후 복구에 주력하던 북한 정권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남포당계를 숙청하여 남한과 연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봉쇄하고,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 지도부 내에서 소련계, 연안계 등을 축출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빨치산파에 의한 항일빨치산 혁명전통을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 자극을 받아 전개한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

33) 1928년 12월 코민테른 정치서기국에서 ‘파벌 투쟁을 청산하고 당의 사회적 성분을 개조하기 위해 특별 결정한 조선공산당 해산 조치 이후 당 재건운동이 있었으며, 국내 유일당 결성에 실패하고 좌우대립은 지속되었다. 1929년에는 코민테른의 ‘일국 일당 원칙’이 제시되었다. 그 후 1935년 코민테른은 제7회 대회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 방침’을 채택하였다. 신주백, 「일제하 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7, 59-73쪽 참고.

34) 김동춘, 「사상의 전개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 모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7, 292쪽에서 재인용.

(1957~1961)의 기간을 2년이나 앞당기며 완수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을 때 남한에서 이승만의 하야와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민주당 정권의 붕괴,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남북한이 동시에 민족주의를 구축, 신화화하던 때였다. 김정훈이 ‘고조기의 남북한 민족주의’로 규정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체제경쟁시기에서 박정희와 김일성은 다 같이 유기체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확대 재생산했으나, 김일성의 정통성의 근거가 혁명전통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보다 민족해방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남북한 사이의 차이는 첫째, 남한에 비해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에 입각해 수미일관한 이론체계를 갖추었으며,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한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통제 체제를 확립하였고 둘째, 남북이 동일한 위기-동원담론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적 동원을, 남한은 위기를 통해 사회를 병영화하면서 그것을 경제로 동원하였으며 셋째, 통일담론에 있어서 북한은 흡수통일의 의지를 보인 반면 남한은 수세였다는 ‘동질이형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전후 북한의 재건과 경제발전에 자극을 받은 남한에서 제2차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 새마을운동, 위인동상 건립, 민족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다. 당시 북한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을 북한의 최고 지도사상으로 규정했다.<sup>36)</sup> 1955년부터 제안한 북한의 주체사상이 1960년대를 거치며 보다 확고한 강령이자 지침으로 정착하면서 미술에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이론적 근거이자 교시가 되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택한 이유는 ‘소련의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 경쟁에 의한 냉전체제의 재편이라는 국제환경 속에 고립화된 데 대한 대응이자 전후 폐허가 된 북한의 건설 및 박헌영 일파의 숙청 후 인민의 단결을 촉진하는 이념의 구축’<sup>37)</sup>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혁명 전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의 문예미학이론의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을 기초로 주체미학을 수립하는 데 있다. 남한의 연구자에 의해 정리된 북한의 미학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적

35) 김정훈, 「분단체제와 민족주의-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동향과 전망』 통권 제44호, 2000년 봄호, 182쪽.

36) 앞의 책, 178쪽.

37) 원동석, 「주체미술의 실상을 밝힌다」, 『월간미술』, 1994년 8월호, 64쪽.



사실주의와 민족형식론 둘째,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 셋째, 주체문예이론과 종자론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sup>38)</sup> 북한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sup>39)</sup>에 따라 민족형식을 강조한다. 이때 민족형식이란 '조선 사람이 좋아하고 조선 사람의 구미에 맞게 만드는 문제는 단순히 형식에 관한 문제, 예술성에 관한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작품의 교양 기능과 동원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된다.<sup>40)</sup> 그런 점에서 민족형식은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하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성은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데서 표현'<sup>41)</sup>되며, 계급성은 '로동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함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게 하는 데서 표현'<sup>42)</sup>되고 인민성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철두철미하게 인민대중에게 복무하여야 한다.'<sup>43)</sup>는 원칙을 따를 때 획득되는 것이다. 민족 형식을 전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조선화를 부각시켰으며, 특히 수묵화보다 채색화를 강조하였다. 이런 점은 미술에 대한 이론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예이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인민은 미술 분야에서도 힘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화를 발전시켜 왔다. 선명성, 간결성, 섬세성은 조선화 화법의 특징이다.<sup>44)</sup>

북한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인민이 쉽게 알 수 있고, 좋아하고,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인민적 형식'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전통회화의 부르주아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격을 가했다. 덧붙여 혁명적 전통을 결여한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고상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은 험악한 민족주의 및 배타주의적 감정과는 인연이 없으며 이러한 낡은 사상의 잔재들을 철저히 숙청할 때에만 참다운 표현을 보게 된다'<sup>45)</sup>는 점을 들어 거

38) 최열, 「북한미술의 이해」, 『월간 말』, 통권 25호, 1988년 7월호, 38쪽.

3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서울: 인동, 1989), 155쪽.

40) 앞의 책, 147쪽.

41) 앞의 책, 92쪽.

42) 앞의 책, 100쪽.

43) 앞의 책, 109쪽.

44) 앞의 책, 148쪽.



도 5. 정영만, 〈강선의 저녁노을〉, 1973, 조선화, 117x197cm.

부하고 있다.

민족 형식에 입각한 주체미술의 성취를 위한 방법론으로 북한에서 제시한 것이 ‘종자론’이다. 북한에서는 종자에 대해 ‘생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sup>46)</sup>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풀이하자면 ‘소재 선택과 구상부터 작품의 엮음새와 구성, 성격 창조와 양상 등 창작의 전과정에 전일적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사상예술적 알맹이로서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핵’<sup>47)</sup>이 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문예이론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1973년에 정영만이 그린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도 5)은 대동강변에 있던 강선제강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 장소는 풍광이 수려하여 옛날부터 선녀가 내려왔다[降仙]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영만의 초안을 본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이 “풍경화의 기성관념대로 강선의 순수자연을 위주로 하였던 만큼 제강소의 위용이 보이지 않고 전통적인 수법을 살린다면서 종자에 관계없이 낡은 것을 답습한다.”고 ‘지도’하자 다시 고쳐 그려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었다는 작품이다. 완성된 작품을 본 김정일은 “조선화는 확실히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선명하고 간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안료로 그린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안료로 그린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미술박물관에 전시하여야겠습니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미

45) 『김일성 저작 선집』 1권. 원동석, 『북한의 주체미술 이론과 창작』에서 재인용.

4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215쪽.

47) 최열, 앞의 글, 39쪽.

48) 리재현, 앞의 책, 649-650쪽.

술가동맹에서 본보기로 창작한 작품이 잘 되었습니다.”라고 칭찬하였다.<sup>48)</sup>

이 작품은 북한에서 주제화 못지않게 풍경화 역시 강한 정치사상성을 띤 형식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미학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리재현의 이 기록은 미술창작 지도에 있어서 김정일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이미 1970년대부터 확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64년부터 조선노동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김정일은 먼저 문화예술 관련 업무부터 관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혁명사업의 선전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화제작을 시작하였고, 점차 다른 예술분야에도 영향력을 강화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한 것이다. 1992년 조선로동당이 출간한 『미술론』을 비롯하여 김정일은 『영화예술론』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을 발표했다.<sup>49)</sup>

마치 예술가를 ‘만능인’으로 파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놀라운 저술활동은 경탄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박정희의 수많은 저서들이 대필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추적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다양한 예술에 대해 집필할 수 있던 개인적 능력의 여부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 흐르는 생각의 편협성, 배타성, 획일성에 대해 짚어 봐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면서 지적 생산조차 익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지적 생산과정의 집단화가 강화되고 이러한 집단성 내에 연구자의 개성이 매몰되면서 지적 생산물의 황폐화·공허화가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적 저작은 김일성 교시의 주석서 내지 해설서로 천편일률화되었다.<sup>50)</sup>

한 국가의 인민들이 하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야 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암기, 발설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술에서도 이런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행복한 낙원이며, 미 제국주의와 그들의 괴뢰인 남한 정부는 타도하고 해방시켜야 할 불행한 땅으로 인식하는 도식적 세계관은 그 기법적 탁월성이 아무리 우수하든 개성이 아니라 집단최면과도 같은 도상의 반복과 나열만 조장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남한에서 생산된 관제미술로서 민족

49) 북한에서 김정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하타야마 야수유키(畑山康幸), 「김정일 시대의 북한미술을 말한다」, 『월간미술』, 1994 8월호, 70-75쪽 참고.

50) 서동만,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2000, 367쪽.

기록화나 기념동상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령으로 한 주체미술은 ‘다르면 서 같은’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로 위장한 봉건시대의 도덕률이거나 군신(君臣)과 부모자식 간의 공경과 복종, 신의와 친애를 중시하는 유교적 윤리관을 덧씌워 놓은 것이므로 퇴행적 민족주의의 잔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Ⅳ.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고착화하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 반대편에 저항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있다. 열강들에 포위당한 채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싸웠던 이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민족해방이란 과제와 함께 성장하여 해방 이후 남한 사회를 지배한 독재체제에 맞서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반체제, 저항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뿌리는 물론 동학농민전쟁, 일제시대 반제 민족해방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한에서 저항적, 반체제적 민족주의는 1950년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론과 평화통일론은 미·소 양 체제의 영향을 극복하는 독자노선을 내세우고, 남북간 평화와 공존 노선을 결합함으로써 냉전과 분단을 넘어서려고 했다. 비록 좌절하기는 했으나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냉전해체를 통해 민족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남한 반체제 민족주의 운동의 선구였음을 보여준다.<sup>51)</sup>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강력하고 완강한 반공정책에 따라 반체제적, 저항적 민족주의는 거의 질식지경에 이르렀지만, 1960년 4·19혁명을 통해 학생들이 남한의 민주화운동의 담당세력으로 부상하면서 회생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짧은 제2공화국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등장한 군부세력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며 민족보다 경제개발,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민족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긴장된 국면에 돌출한 것이 한일굴욕외교를 반대하며 일어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저항적 민족주의의 부활이었다.

이 저항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던 시대는 1980년대였다. 1980년 광주에 민중봉기를 유혈진압한 군부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의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 지식인, 학생부터 노동

51) 박명림, 「한국 민주주의와 제3의 길」, 『죽산 조봉암 전집 6』,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1999, 109-170쪽.

자, 농민, 도시소시민으로 확산되면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운동논리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1972년의 '7·4공동성명'<sup>52)</sup>이 선언으로만 그친 이후 소수에 의해서만 논의되던 '민족통일'이 민주주의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성취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로 떠올랐다. 이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민족·민중미술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70년대의 민중지향적, 민주지향적 민족주의에서 물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1980년대 신군부가 장악한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 아래 저항적 민족주의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1982), 경원대 학생의 성조기 소각사건(1982), 서울미문화원 점거사건(1985) 등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반미(反美)를 전면에 내세운 특징이 있다. '미국이 과연 남한의 우방인가' 하는 의문은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석연치 않은 태도에서 촉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분단이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기획된 결과이고, 남한은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된 신식민지적 상태란 정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의식은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미국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물론 1980년대 후반 반미감정이 극대화되면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제5공화국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투쟁하는 반파쇼, 반미, 반제국주의 등의 민족해방운동으로 개념화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민중·민족주의로 수렴되는 과정에 문화예술에서도 조직을 통한 문화운동의 양상이 구체화되었다. 1984년 민족문화협회의의 결성과 1985년 민족미술협의회 발족 등은 비판적, 반체제적 문화운동 단체들의 대오를 정비하고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학생운동, 민중운동, 민족운동,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학생운동권에서 학림파 무림, 자민투와 민민투로 나뉘고, 나중에는 민족해방노선(NL)과 민중민주주의(PD)로 분열되며 운동권 내부의 이념투쟁도 나타났다.

1984년 서울의 아랍미술관에서 열린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이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것을 계기로 현실과 발언, 광주 자유미술인회, 두령, 임술년, 서울미술공동체 등이 결합된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되었으나, 그 뿌리는 멀리는 1969년에 결성하자마자 좌절된 '현실동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11월 22일 창립총회를 가진 민족미술협의회는

52) 남북한은 분단 사반 세기만에 '자주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7개항을 발표한다. 남 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문공부에서 '북괴'란 호칭을 '북한'으로 부르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회의 답변에서 대북한정책은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해 10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주창하였다.

본회는 미술의 창작과 수용, 소통 및 유통질서의 개선에 노력하고 미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미술문화의 민주적 발전과 자주적인 민족미술을 정립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정관 제1장 총칙 제3조)<sup>53)</sup>

대외적으로 민중미술로 불리거나 민중미술론을 주장하는 이론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창작활동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명칭을 ‘민족미술’로 채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 미술운동은 민족·민중주의란 담론 아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재인식, 통일론의 대두, 특히 1986년 이후 격화된 민주화운동에 따라 미술운동 진영에서도 이념논쟁이 일어났으며, NL과 PD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저항적 미술을 관통하는 담론은 역시 ‘민족’이었다.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은 반미, 반봉건, 반외세, 반제국주의, 통일 등을 이끌어가는 축이자 민중적 자발성을 강조한 ‘전투적 신명, 공동체적 신명’에서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의 원동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해체하는가?

1987년의 선거를 통해 불완전하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남한 사회는 1989년 동구권의 해체에서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뒤이은 세계화의 거대한 조류가 엄습함에 따라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과거 소비에트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회주의에 의한 국제주의(globalism) 체제 속에 편입되었던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인종세탁이란 참혹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한국사회에도 밀려왔던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이 1980년대 남한사회에 만연했던 민족주의 담론을 잠재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족주의에 대한 재검증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짚어 볼 것이 이른바 문민정부에 의해 제안된 ‘세계화(Segye-hwa)’ 담론이다.

---

53)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243쪽에서 재인용.

1990년대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주요 담론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제화’였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장한 ‘세계화’는 무한경쟁을 앞세운 위기론으로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화와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이었다. 김영삼은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분단논리를 통해 위기를 재생산하기보다는 경제논리를 통해 위기를 재생산했다.<sup>54)</sup> 말하자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적 위기의식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민족이 사상과 체제에 앞선다는 ‘민족대단결론’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규정했다. 위기의 재생산은 복거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어의 폐기와 영어의 공용어화라는 주장을 낳는가 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남한 사회를 아노미(anomie) 지경으로 내몬 영어학습 신드롬에서 조기유학에 이르기까지 국제화는 거의 생존의 논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방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국제화는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 제기된 문명개화론과 1960년대의 근대화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론이 문명개화론이나 근대화론과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김동춘은 “첫째, 서구 선진국의 표준을 추종하는 것이 곧 민족의 발전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 보편주의적 정서에 경도되면서 실제로는 ‘특정의’ 외세에 의존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셋째, 국내 민중에 대한 배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기보다는 엘리트의 작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55)</sup> 결국 문민정부의 세계화도 배타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통치이념의 수식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나라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화는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 경제적인 현상으로 그 특징은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무역자유화 둘째, 금융의 세계화 셋째, 생산의 세계화로 압축된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바꿔 놓았으며,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는 더욱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

54) 김정훈, 앞의 글, 184쪽.

55)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대토론: ‘국제화시대’의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발제 1),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4 겨울호, 53-54쪽.

정의 발효에 따라 경제의 국경을 해체하였으며,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진, 세계금융시장의 확대, 초국가적 기업의 영향력 확산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고 있다. 마침내 학계에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내파하는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란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남한의 미술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자취를 감춘 것은 사실이다.

21세기 초반 우리에게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이중적이다. 한편에서는 국수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분리하지 못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주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사실 ‘단일민족’이란 미술에 걸려 있는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혈통주의가 혼재하는 특수한 상황은 이중적 민족주의를 생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 못지않게 반미도 혈통주의에 의존한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 첨단전자기술에 의한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주의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지만, 2002한·일 월드컵에서 볼 수 있듯 지극히 표피적이면서 감성적인 민족주의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동시에 작동하는 ‘과잉된 민족주의’는 대중문화에서도 발호하고 있다. 정체가 불분명한 민족주의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듯 대중교의 총천교인 봉우 권태훈의 소설 『단(丹)』과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끌며 민족주의의 왜곡이 일어났던 것이다. 1984년에 출간한 『단』은 무려 100만 부란 판매실적을 올리며 한국고대사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개심과 분노를 ‘영똥하게도 북한의 핵폭탄 발사’란 시나리오로 해소시키고자 했다. 소설처럼 핵은 ‘분풀이용’은 아니며,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할 것이므로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환상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갈등과 분쟁이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민족주의는 폐기해야 할 근대의 유물이거나 상상된 것 또는 불변하는 진리라기보다 사회적 현실이자 유동하는 담론의 체계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이미 세계화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지만 근대의 질곡인 분단, 이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에 분명하다. 특히 동아시아연대를 생산하면서도 새롭게 발호하는 국가민족주의 앞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일본과 중화민족주의에서 결코 벗어



나지 않고 있는 중국은 물론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체제 해체 이후에 소수민족을 억압하면서 국가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세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김구의 민족주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혈통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 온 우리에게 정서적 만족을 제공해줄지 모르지만 탈냉전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고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비민주적인 억압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점은 자명하다. 민족주의가 마냥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복음은 아니겠지만, 민족주의를 배제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소설가 황석영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민족을 버렸다」는 인터뷰 기사<sup>56)</sup>를 흥미롭게 읽은 나는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쓴 다음의 짧은 글을 통해 외국 학자는 과연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초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역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화에 저항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저항이 강한 편이다.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이를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큰 포용력을 보여 왔다. 한국의 세계화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의한 한국적 가치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기존에 한국 문화를 알 잡아뉘던 일본, 중국 등이 그렇다. 한류(韓流)는 중국,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갔고, 이제 유럽,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대중문화의 한류만큼 고급문화도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통 규범과 근대성, 세계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전수천의 설치미술, 심문섭의 조각, 임권택의 영화, 이영희의 한복 패션 디자인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진정 글로벌('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이란 뜻으로 global과 local의 합성어)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글로벌한 문화는 지역적 뿌리를 가진 동시에 전인류를 위한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가치 공유와 상호 이해가 바로 민주주

56) 「작가 황석영에게 듣는다」, 『중앙일보』, 2006. 9. 25.

의와 평화의 주춧돌이다.<sup>57)</sup>

기 소르망이 북한이란 존재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남한만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고, 그가 (기억나는 대로) 예시한 예술가들이 글로컬리즘에 부응하는지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그가 말하고 있는 글로컬리즘은 적어도 남한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이미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와 같은 블록버스터 전시는 물론 크고 작은 전시와 이론을 통해 이 담론이 유포된 것도 오래전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문은 이것이다. 글로컬리즘은 한국의 오래된 민족주의를 해체하는 유효한 방안인가? 웬지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로 윤색된 언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투고일 : 2006. 6. 30 / 심사완료일 : 2006. 9. 1

---

□ □ 주제어(Keywords)

민족(nation), 민족주의(nationalism),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 as a guided ideology),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 as a resist ideology), 민족기록화(picture of national records), 주체미술(Joochemisool)

---

57) 기 소르망, 「해외 칼럼: 글로컬로 가는 한국 문화」, 『중앙일보』, 2006. 9. 29.

## 참고문헌

### 〈단행본〉

-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1998.
-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제6대 편』, 대한공론사, 1973.
-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서울, 인  
동, 1989)
-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 앤더슨, 베네딕트,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 정갑영,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오름, 2005.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증보판), 돌베개, 1994.
- Bhabha, Homi K., *Nation and Narrative*, London: Routledge, 1990.
- Williams, Raymond, *The Year 2000*, New York: Pantheon, 1983.

### 〈논문 및 기사〉

-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대토론: ‘국제화시대’의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발제 1), 『역사비평』, 역사문  
제연구소, 1994. 겨울.
- \_\_\_\_\_, 「사상의 전개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 모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  
사, 1997.
- 김정훈, 「분단체제와 민족주의 -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동향과 전망』 통권  
제44호, 2000 봄.
- 박계리, 「충무공 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4.
- 박명림, 「한국 민주주의와 제3의 길」, 『죽산 조봉암 전집 6』,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1999.
-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 가을.
-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15집 특별호, 2005.
- 박찬승,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역사비평』 통권 7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여름.
-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미술이론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 서동만,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7.
-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2006.
- 신주백, 「일제하 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7.
- 원동석, 「주체미술의 실상을 밝힌다」, 『월간미술』, 1994. 8.
-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채상우, 「북한의 문예이론에 대하여 -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민족국가 기획으로서의 문학」,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

최갑수,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제31호,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2003.

최열, 「북한미술의 이해」, 『월간 말』 통권 25호, 1988. 7.

한상일,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집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하타야마 야수유키(畑山康幸), 「김정일시대의 북한미술을 말한다」, 『월간미술』, 1994. 8.

「작가 황석영에게 듣는다」, 『중앙일보』, 2006. 9. 25.

기 소르망, 「해외 칼럼: 글로컬로 가는 한국 문화」, 『중앙일보』, 2006. 9. 29.

〈도표 1〉 196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민족기록화전》 출품 목록<sup>58)</sup>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한국전쟁	이 준	수색방어선의 적 섬멸		1000호
	임상진	괴뢰군의 만행(인민재판과 양민학살)		1000호
	임직순	도솔산의 격전		1000호
	장리석	1·4후퇴		1000호
	장성순	원산 시민의 국군 환영		500호
	정창섭	괴뢰군 탱크를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특공대원	소재 미상	1000호
	조용익	해병대의 통영 상륙		500호
	천칠봉	국립묘지		500호
	오승우	용문산의 혈전		1000호
	류경채	YAK전투기를 격추하는 PF62함		1000호
	윤명로	낙동강 전선 반공전		1000호
	윤형근	낙동강 전선 이남으로 전면 후퇴하는 국군과 피난민	소재 미상	500호
	이마동	백구부대의 수송작전		500호
	이만익	압록강에 도달하여 전진을 쫓는 6사단 7연대 용사		500호
	이봉렬	승호리철교 폭파작전		500호
	이세득	인천상륙작전		1000호
	박광진	적전차를 육탄공격하는 이근철 비행단장	소재 미상	1000호
	박항섭	대동강철교를 건너는 평양 피난민	소재 미상	1000호
	곽 훈	L-4형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초창기의 공군	소재 미상	500호
	김서봉	구월산 지구 유격대		1000호
	박서보	음성지구 포위섬멸전		1000호
	김성재	3·8선을 돌파 복진하는 국군용사		1000호
	김숙진	모란봉에 돌입하는 1사단 용사		1000호
	김영주	서울 시가전(9·28수복)		1000호
	김중하	공산 측 설득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반공포로		500호
	김종학	학도의용군의 분전		1000호
	김차섭	포병의 분신 김풍익 중령		500호
	김형구	살신성인의 이인호 소령	소재 미상	500호
	문우식	백마고지 쟁탈전		1000호
	양인옥	장열 공수단 이원등 상사		500호
베트남 전쟁	이춘기	비둘기부대의 건설공사		500호
	정영열	청룡부대의 짜빈동 대첩		1000호
	최경한	청룡부대의 감란 상륙작전		500호
	최덕휴	베트콩을 소탕하는 맹호 용사		1000호
	이인영	대민사업과 한월 친선		500호
	이일영	베티 고지의 영웅 김만술 소위		500호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베트남 전쟁	박연도	월남인을 놀라게 하는 태권도		500호
	박영선	비둘기부대 환영식		1000호
	김영창	맹호부대의 귀는 상륙		500호
독립운동	장두건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	소재 미상	500호
	윤중식	8·15해방		1000호
	박창돈	동학군 의거		1000호
	김홍수	3·1독립운동	소재 미상	1000호
근현대사	정상화	이승만 대통령 하야(4·19)	소재 미상	1000호
	한봉덕	4·19학생 의거		1000호
	이경연	신탁통치 반대		500호
	이용환	해군 구축함의 간첩선 격침		500호
	이의주	국군의 귀감 강제구 소령		500호
	문학진	존슨 미대통령 내한		1000호
박정희, 5·16쿠데타 미화	박득순	박대통령의 방미		1000호
	박상옥	혁명군의 한강 도하		1000호
	김인승	박정희 장군의 혁명군 지휘	소재 미상	1000호
한국고대사	김창락	천개도	소재 미상	1000호

58)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75-176쪽 민족기록화 제작자 명단에서 정리.

〈도표 2〉 베트남 전쟁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베트남 전쟁 (1972)	임직순	양케패스 작전		200호
	임직순	수색 작전		200호
	장두건	다반 평야를 낀 백마의 공격		300호
	장두건	몬타나 족의 구호		300호
	천경자	목적		150호
	천경자	꽃과 병사와 포성		
	오승우	기습		
	오승우	소탕전		500호
	이마동	백마10호 작전 1		200호
	이마동	백마10호 작전 2		200호
	박광진	백마11호 작전		
	박광진	수색작전		
	박서보	몬타나 족 수용소 대민 의료지원		200호
	박서보	중대기지 초계		300호
	박영선	양케 고지 전투		250호
	박영선	A.P.C. 작전		250호
	김기창	적연		300호
	김기창	초연		200호
	김 원	영웅 임동춘 대위의 최후		250호
	김 원	양케 638고지		250호

〈도표 3〉 새마을운동(1972~78)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제작연대	규격
새마을운동	박각순	채석장	1972	100호
	박광진	단장된 마을	1972	60호
	김옥진	벽지의 한적	1972	60호
	김 원	협동하는 새마을 I	1972	
	김 원	협동하는 새마을 II	1972	
	김정현	우리 마을	1972	60호
	김종하	묵현 부락	1972	50호
	박각순	설악산과 비선계곡	1974	60호
	김숙진	불상	1974	60호
	박득순	새마을운동	1975	80호
	김응현	자주정신 선양(서예)	1977	138×35cm
	박 일	백두산 천지(서예)	1977	190×66cm
	김기승	77년도 시정목표(서예)	1977	35×55cm
	박항섭	새아침이 밝았네	1978	100호
	한봉덕	우리 힘으로 가꾸세	1978	100호

〈도표 4〉 1973 제1차 경제개발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1차 경제 (1973)	장리석	종합우수 새마을	한국방송공사	
	장리석	국립종축장	총무처	
	임직순	석유화학 공업단지	총무처	
	정영렬	조립단지	현대미술관	
	정창섭	인천항 제2독크	한국방송공사	
	천칠봉	경지정리	총무처	
	최덕휴	창성광업소	현대미술관	
	하인두	동명목재	총무처	
	손응성	불국사	총무처	
	오승우	포항종합제철	총무처	
	이동훈	환경정리 새마을	총무처	
	이마동	감굴	총무처	
	이용환	굴뚝목 양식	총무처	
	이의주	호남정유	총무처	
	이인영	협업영농 새마을	총무처	
	이일영	지하철 1호선 승강구	총무처	
	김 원	마산 공업단지	총무처	
	박각순	남해대교	총무처	
	김종하	한일합섬	총무처	
	박광진	소양강댐	총무처	
	박득순	현대조선소	육군종합행정학교	
	박서보	수출선박	국회 사무처	
	박영선	현충사	현충사 관리사무소	
	박창돈	금성사	총무처	
	박항섭	한국기계	총무처	
	김서봉	서울 - 부산 간 고속도로	총무처	
	김숙진	한국비료	현대미술관	
	김창락	쌍용시멘트	총무처	
	김 태	신진자동차	노동청	
	김형구	고리 원자력발전소	육군종합행정학교	



〈도표 5〉 2차 경제(1975)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2차 경제 (1975)	정영렬	팔당수력발전소	세종문화회관	
	정창섭	인천항 독크	총무처	
	천칠봉	대단위 뽕밭	어린이회관	
	최영립	대동공업	어린이회관	
	손응성	호남고속도로	세종문화회관	
	양인옥	기아산업	총무처	
	오승윤	구미 전자공업	총무처	
	이마동	소득산업	어린이회관	
	이용환	삼도물산	어린이회관	
	이인영	삼화목장	국회 사무처	
	이일영	강원탄광	어린이회관	
	박각순	산업선 전철	국회 사무처	
	박광진	아산방조제	총무처	
	박득순	지하철	세종문화회관	
	박영선	인천판유리	어린이회관	
	박창돈	선경	어린이회관	
	김숙진	소양강댐	어린이회관	
	김 원	해안사방	어린이회관	
	김창락	원양어업	국회 사무처	

〈도표 6〉 전승, 구국위업<sup>59)</sup>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전승 (1975)	이종상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국회 사무처	
	장리석	홍주성 수복	육군종합행정학교	
	정창섭	태백산 전투	청와대	
	손수광	청산리 싸움	국회 사무처	
	안재후	여진 정벌	국회 사무처	
	오승우	신라의 당군 격퇴와 삼국통일	청와대	
	오승우	행주대첩	수도군단 사령부	
	이용환	구주대첩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일영	쌍성수복	1군사령부	
	박각순	살수대첩	국회 사무처	
	박광진	장보고의 해상활동	1군사령부	
	박석호	추풍령 싸움	1군사령부	
	박창돈	안시성 싸움	육군종합행정학교	
	강대운	진주성 싸움	1군사령부	300호
	김기창	명랑대첩	국회 사무처	300호
	김서봉	삼별초의 대몽항쟁	총무처	

내 용	작가명	작 품 명	소장처	규격
전승 (1975)	김 태	동령부 오라산성의 공함	국회 사무처	
	김 태	육진개척	수도군단사령부	
	김형구	한산대첩	국회 사무처	
구국위업 (1976)	이종상	태종무열왕	국립극장	
	임직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국회 사무처	
	장리석	민족을 계몽하고 있는 안창호선생	총무처	
	정영렬	연개소문의 살수 싸움	국회 사무처	
	정창섭	조현 선생의 금산 전투	총무처	
	최대섭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총무처	
	손수광	충정공 민영환의 자결순사	현대미술관	
	신영창	백마산성을 지킨 임경업 장군	총무처	
	오승윤	동학교주 전봉준	국회 사무처	
	이의주	최익현 선생의 유해 한국	국립극장	
	이인영	안용진 담판을 하는 서희	한국방송공사	
	이일영	파고다공원의 독립만세	국회 사무처	
	박각순	교정에 선 이승훈 선생	총무처	
	박광진	승군을 지휘하는 휴정(서산대사)	총무처	
	박기태	박승환의 자결순국	현대미술관	
	박서보	설법으로 왜군을 감동시킨 사명당	한국방송공사	
	박영선	이등박문을 총살하는 안중근 의사	현대미술관	
	박창돈	최영 장군의 홍산 전투	관세청	
	김 태	홍의장군 광재우	총무처	

59)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75-176쪽 민족기록화 제작자 명단에서 정리. 이 도표들의 소장처는 박영남의 글이 발표될 시점을 근거로 한 것이나, 향후 민족기록화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서, 나아가 기록화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소장처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둔다.

## Dual Faces of Nationalism reflected in Contemporary Korean Art and Society

Choi, Tae-Man

In Korea, nation and nationalism are undeniable justice, absolute virtue and moreover system of desi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when the Korean Peninsula had to survive from the critical situation of being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through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imperialism, nationalism became stronger as a logic of survival. The policy of seclusion under closed and exclusive nationalism that didn't recognize the world situation well enough, eventually gave more pain to the natio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which was as reformed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hand, as intransigent, resisting nationalism. Since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not for clarifying the argument raised on Korean nationalism, there is no use mentioning how it went with the change of time. But we have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word 'nation' which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popular revolution and capitalism meaning 'a group of people', was translated and understood as a racial concept for strengthening the unity of 'single-race nation with five thousand years' history.

First of all, there is nationalism used to fortify the system.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were ornaments to intensify the ruling ideology and dictatorship to militarize entire South Korea for 'settling Korean democracy' professed nationalism. Also, another ruling ideology armed with 'self-reliance' put North Korea into the state of hypnosis called nationalism. Nationalism, claiming 'nation' outwardly, but in reality, being an illuminating, instructing ideology isolating each other was indeed a body with two faces. This made 'nation' in Korea mysterious and objective through work such as. The statue commemorating patriotic forefathers' and picture of national records' in South Korea art. Nationalism used to strengthening the system encountered the magical 'single-race' and made 'ghost' being an extreme exclusion to other nations. We can find pedigreed pureness not allowing any mixed breeds from the attitude accepting western art -via Japan or directly- and making it vague by using the word Korean and Asia.

There's nationalism as a resistant ideology to solidify the system on the other side. It came out as a way of survival among the Great Power and grew with the task of national liberation to become as a powerful force facing against the dictatorship dominating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is discussion of nationalism as a resistance ideology was active in 1980s. In 1980, democracy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of 5th Republic originated from military power which came out suppressing the democratic movement in Gwangju, spread out from the intellectuals and the students to the labors, farmers and the civilians. It is

well known that the 'Nation-People(Minjoong)'s Art Movement could come out under this social condition.

Our attitude toward nationalism is still dual in this opening part of 21st century. On one hand, they are opposing to the ultra-nationalism but are not able to separate it from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they have much confusion using it. In fact, in a single-race nation like Korea, the situation of being nationalism and jus sanguinis together can cause dual nationalism.

Though nationalism is included in the globalization order, it is evidence that it's effective in Korea where there are still modern fetters like division and separation. In particular, in the world where Japan makes East Asia Coalition but exposed in front of nationalism, and China not being free from Sinocentrism, and American nationalism taking the world order, and Russia fortifying nationalism suppressing the minority race after the dissolution of socialism, Korean nationalism is at the point to find an alternative plan superior to the ruling and resisting ideology.